

간접번역과 번역교육: 금강경에 포함된 붓다의 명호번역을 중심으로

이 승 재
(경희대)

1. 서론

불교가 한국에 소개된 이후 불경번역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와 맥을 같이 하였다. 하지만 의식(儀式)적인 성격이 강한 한국 불교는 최근까지도 초기 한역(漢譯)불경에 한글 토를 붙여 읽는 방식으로 불경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한역불경에 토를 단 한글 경전은 한글세대가 내용을 음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경전독해의 난해함을 줄이고 교세확장을 위해서 최근에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역불경의 한글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자로 불교의 교리를 전달하고 있는 한역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표면적으로 언어적 접근성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다. 본 고에서는 세계 종교 문학의 보석으로 일컬어지며 마하야나(Mahayana)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금강경」¹⁾을 중심으로 의미어(意味語)인 한자의 언어 틀에서 정형화되어

천오백년을 유지해온 한역금강경이 한글의 언어체계로 번역되고 해석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자어의 영향과 의미의 손실과 변형, 즉 중역(重譯)된 불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의 손실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구마라집 한역본 금강경, 표준 한글본 금강경, 그리고 영역본 금강경을 비교하면서 금강경의 본문 중에 붓다를 지칭하는 명호(佛, 世尊, 如來)를 중심으로 이들의 의미역과 사용역을 살펴보고 중역의 한계와 함의를 교육적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헌연구

2.1 수트라(Sutra)와 불경(Buddhist Sutra)

수트라는 고대 인도의 문학전통으로 격언이나 매뉴얼 등으로 구성된 간략하지만 구성의 규율과 형식이 엄격한 텍스트 장르로 의식이나 철학 등의 가르침을 정제된 단어와 어절을 모아 실(thread)처럼 엮어놓은(woven) 문학전집(collection)이다(MacGregor 1989, p.1241). 불교에서는 붓다의 구두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Buddhist Text)을 수트라라 부르고 있으나 불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쓰여진 불경(Buddhist Sutra)은 격률성과 간결성을 강조하는 인도의 전통 문학장르인 수트라와 달리 섬세하고 반복적인 구조를 갖는다.

인도의 문학장르인 수트라와 불경이 구성상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불교의 내적문화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승가를 중심으로 한 상호공동체인 불교는 붓다의 생전 가르침을 어려운 산스크리트어로 성문화하기보다는 제자들의 기억을 통해서 재생 반복하는 구전경전을 택하고 구두전승을 위해 독경과 정례화한 찬팅(chanting)을 강조하였다(Müller 1894, p.224; Conze 1967, p.67). 따라서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열반(BC 383)에 이르기까지 50년 동안 제자들에게 설한 법문은 제자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전승된 구전경전이 전부이므로

1) 금강경은 산스크리트어로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 지혜의 완성(perfection of wisdom)을 의미한다. 금강경의 산스크리트어에 포함된 vajra는 금강석(diamond)처럼 단단하여 파괴되지 않거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단단함을 의미한다. 불교의 중심사상을 설파하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간단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어 조계종의 소의경전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다.

Conze(1967, p.56)가 언급하였듯이 성문화된 불경이 나올 때까지²⁾ 카르마(karma)와 같은 도덕적 최대값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2. 금강경 번역

금강경은 중국 후진(後秦)시대 300여권의 불경을 한역하여 불교 보급에 큰 역할을 한 최초의 삼장법사 구마라집(鳩摩羅什, 402)에 의해서 산스크리트어에서 한자로 번역된 「금강반야바라밀경(秦金剛般若波羅蜜經)」이 있다. 그리고 이후 여러 차례 다른 한역본이 출간되어 총 6종의 한역본이 전하고 있다.³⁾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원효대사가 금강경번역을 시작한 이후 한역본을 원문으로 하여 한글주석을 단 조선시대 「금강경언해」를 포함하여 수차례 한글번역을 시도하였고 최근에 「조계종 표준 한글본 금강경(2013)」이 번역되어 보급되었다. 서양에서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불경영역본 발급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⁴⁾ 금강경을 최초로 영역한 불교학자 물러(Müller 1894)는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하는 방편으로서 금강석(diamond)처럼 단단한 지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Diamond Sutra라 명명하였다.

금강경은 사위국 기원정사(Sravasti, in the Jeta Grove)⁵⁾에 1,250명의 승려

- 2) 성문화된 불경의 최초등장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원전 1세기의 Pali Canon으로 보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1-2세기에 활자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 3) 금강경에는 다수의 이역본들이 존재하는데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은 진금강반야바라밀경(秦金剛般若波羅蜜經, K-13)이라 하고, 진제가 번역한 것은 진금강반야바라밀경(陳金剛般若波羅蜜經, K-15) 보리류지의 번역본은 위금강반야바라밀경(魏金剛般若波羅蜜經)이라 한다. 본고에서는 구마라집의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으며, 약하여 금강경이라 한다.
- 4) 금강경은 실크로드의 전초지인 중국 둔황에서 주변국에 의해 존재의 위협을 당하던 AD 1,000년 경 비밀 도서관(Secret library of Sutras)에 40,000여 개의 다른 불경과 함께 감추어졌다가 1900년대에 발견되면서 영국의 옥스퍼드대학(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 및 미국을 중심으로 불경연구 및 번역수행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5) 산스크리트어에서 한자로 음차번역한 것으로 붓다는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많은 설법을 했다고 한다.

와 함께 상그라(saṅgha)에 머물던 붓다와 제자 수보리(Subhuti)와의 대화내용이다. 붓다는 수보리에게 지속적으로 사물에 의문을 갖도록 질의를 하고 답변의 논리성을 당위적으로 유도하는 대화법(何以故)을 취해 현실의 본질과 보살의 활동, 그리고 개념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 즉 불교의 대표적인 공(空)사상을 질의와 답변, 확인과 침언의 반복구조를 통해서 설법하지만, 실제로 공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초기경전으로 분류된다.

불교의 교리는 주술적인 성격을 배제한 철학적 논리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불교 경전에 내재한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중국을 통해서 불경을 받아들인 한국불교에서는 한문으로 쓰여진 한역불경이 불교 경전의 원문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한역불경은 이미 원문인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경전의 내밀한 의미가 도착어인 중국문화와 한자의 사유체계에 맞게 융화되어 격의화된⁷⁾ 결과물이므로, 중국에서 전해진 한역불경은 번역과정에서 의미의 침식과 상실이 있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즉 초기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이 붓다의 설법을 운문의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데 반해 구마라집의 한역본 금강경은 산문형식의 서술체를 띄고 있다. 비록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의미는 같다고 할지라도 전달의 형식과 묘미가 다른 것은 언어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상의 차별성에 근거한 번역불가능성(intranslability)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⁸⁾

- 6) 금강경에서는 何以故(왜냐하면)로 시작하는 문장이 총 39회 나타난다. 당위성 근거를 유도하는 기능어인 何以故의 반복적 사용은 금강경의 특징적인 설법논리이다 (이승재 2017, p.222).
- 7) 중국에 전파된 불교의 이질적인 교리를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과 연관시켜 불경을 이해하려는 방법으로 불교의 반야공(空)사상이 노장의 무(無)를 매개로 이해되는 것이 일례이다.
- 8) 이로 인해 구마라집의 한역본에 근거한 금강경 번역은 난해할 수도 혹은 의미의 혼돈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산스크리트어 원문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붓다 생존의 산스크리트어는 교육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해되었기 때문에 당대에는 불교의 포섭과 확대를 위해서 지역방언으로 번역하는 것을 격려했다. 현재 구마라집이 한역하여 널리 통용되고 있는 금강경은 Mahayana 불교가 발달한 지역으로 산스크리트어의 지역방언에서 해당된다. 따라서 붓다가 직설한 원문이 남아있다면 그것과의 상이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2.3. 금강경의 내용과 명호

금강경은 불교의 기본 논리인 공(空)사상을 설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대신 “보살(菩薩)” “보시(報施)” “복(福)” 등의 명시적(norminal) 개념에 동반되는 허상을 부정하고, 현실의 본질 그리고 보살의 활동 등을 직시하여 집착하지 않는 깨달음을 강조한다.⁹⁾ 금강경은 제자인 수보리에게 자기성찰적인 질의를 통해 사물에 대해 미리 갖고 있던 제한적인 개념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고 당위적 답변을 통해 언어적 개념과 실체를 해리시켜 본질에 이르게 하며, 설법과정에서 부정의 논리(the logic of NOT; Nagatomo 2000) 혹은 차감논리(cut through: Red Pine 2009; Thick 1992)를 사용했다. 금강경의 궁극적인 지혜는 모든 환상을 제거하고 진실을 밝혀 빛나게 하며, 단단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지혜의 완성(perfection of wisdom), 즉 산스크리트어의 ‘vijra’처럼 단단하여 어떠한 무지함도 능히 깰 수 있으며 또한 그 자체로 단단하게 빛나는 지혜의 완성을 의미한다.

금강경은 붓다와 수보리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설법을 전하고 있으므로 붓다의 명칭이 자주 언급된다. 불교의 창시자이며 종교 지도자인 싯다르타(Gautama Siddhārtha)는 깨달음을 얻은 후 다양한 명호로 지칭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석가족(族) 출신의 성자(Sage of the Shakyas)라는 뜻으로 석가모니(Shakyamuni Buddha) 혹은 간단히 붓다(Buddha)라고도 불리며, 불교계에서는 여래십호(如來十號)라 하여 총 10개의 명호가 동시에 석가모니 붓다의 다양한 측면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¹⁰⁾

한역금강경에는 상그라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붓다를 지칭하는 명호로 ‘佛, 世尊, 如來’가 쓰이며, 한글금강경에서는 한역본의 명호가 ‘부처님, 세존, 여래’ 등으로 번역되어 빈도와 사용이 거의 일치한다. 위의 각 명호의 사용을 붓다의 별칭으로 보고 여래십호의 단순한 의미상 중복이나 대체사용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각 명호의 단순 동일화는 금강경의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져온다. 따라서 각 명호가 사용된 텍스트의 맥락에 의존하여 사용역을 분석하고 이것을 다른 번역본(영어번역본)과 비교하여 붓다 명호의 사용역과 의미역을 살펴봄으로써 여래십호로 일축되었던 금강경 텍스트 내의 붓다의 명칭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3.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구마라집 한역금강경, 조계종 표준 한글금강경, 그리고 영역금강경(Harrison 2006, Red Pine 2002, International Buddha-Dharma Society for Cosmic Law 2017)을 발췌하여 금강경의 원본지위를 갖고 있는 한역본을 중심으로 붓다의 명호인 佛, 世尊, 如來의 한글번역, 영어번역을 각각 비교하였다.

3.2 명호번역의 사용역(使用域) 비교

〈표 1〉 금강경 번역본의 명호사용 빈도비교표¹¹⁾

	한역 (TC)	한글 (TK)	Harrison (TE1)	Red Pine (TE2)	IBDS (TE3)
佛	76	부처님 55	Lord 114	Buddha 80	Buddha 149 lord 9
世尊	53	세존 52	Buddha 14	Bhagavan 86	The honorable one
如來	88	여래 95	Tathagata 100 the realized one 15	Tathagata 156 Sugata 11	Most Honored One 25 A Perfectly Enlightened Buddha Lord Buddha 13
단어수	1,318 ¹²⁾	3,880	6,889	7,260	6,654

9)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마음을 낸 불자가 보살도를 행하면서 혹은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구심에 대해 제자인 수보리가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붓다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10) 범화경(Lotus Sutra) 서품에서는 깨달은 자를 ‘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p.31-32)으로 명호하였는데, 이것은 붓다의 공덕을 10가지 면으로 존칭한 것으로 여래십호(如來十號)라 한다.

11) 본고에서는 지면상 한역금강경은 TC, 한글금강경 TK, 영역금강경의 각 번역본을 TE1, TE2, TE3로 표현한다.

12) 한문은 의미어이므로 어절단위를 단어로 보았고 한자수는 5,174이다.

<표1> 금강경의 명호번역에서 한역본 ‘佛, 世尊, 如來’은 한글본에서 한자를 그대로 번역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역-한글본 대조에서는 두 언어의 내적구조에서 발생한 명호의 수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번역상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역본의 명호 번역(Harrison TE1, Red Pine TE2, IBDS TE3)에서는 역자에 따라서 한역본의 佛을 Lord 혹은 Buddha, 世尊을 Buddha 혹은 Bhagavan으로 번역하였다. 如來에 대해서는 Tathagata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ISBD(International Buddha-Dharma Society for Cosmic Law)의 번역에서는 주로 Buddha라는 용어를 핵심어로 사용하되 간혹 수식어(honorable, honored, enlightened)를 사용하여 佛, 世尊, 如來의 의미 변형으로 사용하였다.

본 고에서 고려하고 있는 명호 ‘佛, 世尊, 如來’가 모두 포함된 금강경 제 13장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의 원문과 번역문을 추출하여 각 명호의 의미역, 사용역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표 2> 금강경 제13장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 1

TC	爾時, 須菩提白佛言。「世尊, 當何名此經? 我等云何奉持?」
TK	그 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죄였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어라 이름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겠습니까?
TE1	At these words, the Venerable Subhuti said this to the Lord. “What is the name, Lord, of this round of teachings, and how should I memorize it?”
TE2	This having been said, the venerable Subhuti asked, “Bhagavan, what is the name of this dharma teaching, and how should we remember it?”
TE3	Subhuti said to the Buddha, “By what name shall we know this Sutra, so that it can be honored and studied?”

<표 2> 世尊은 한글역에서는 세존으로 번역되며, TE1에서는 Lord로 TE2에서는 Bhagavan으로 번역되었다. Harrison(2006) 영역본에서는 佛, 世尊이 공통적으로 Lord로 번역되지만, Red Pine(2002)에서는 世尊을 Bhagavan로 일관성있게 번역하였다. 한역본의 佛은 한글본에서 부처님으로 번역되며, 이들은 서술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世尊은 공통적으로 수보리가 사용하는 대화상의 호칭으로 볼 수 있다.

<표 3> 금강경 제13장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 2

TC	佛告須菩提。「是經, 名爲金剛般若波羅蜜, 以是名字, 汝當奉持。所以者何, 須菩提, 佛說般若波羅蜜, 卽非般若波羅蜜, 是名般若波羅蜜。」
TK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렇게 너희들이 마땅히 받들어 지니라. 왜냐하면 佛이 말한 반야바라밀이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일 뿐이기 때문이라.”
TE1	At these words, the Lord said this to the Venerable Subhuti, “This round of teachings, Subhuti, is called the Perfection of Insight, and this is how you should memorize it. Why is that? The very Perfection of Insight, Subhuti, which the Tathagata has preached is itself perfectionless.”
TE2	The Buddha told the venerable Subhuti, “The name of this dharma teaching, Subhuti, is the Perfection of Wisdom. Thus should you remember it. And how so? Subhuti, what the Tathagata says is the perfection of wisdom, the Tathagata says is no perfection. Thus is it called the ‘perfection of wisdom.’”
TE3	The lord Buddha replied, “This Sutra shall be known as ‘The Diamond that Cuts through Illusion’. By this name it shall be revered and studied and observed. What does this name mean? It means that when the Buddha named it, he did not have in mind any definite or arbitrary conception, and so named it. This Sutra is hard and sharp, like a diamond that will cut away all arbitrary conceptions and bring one to the other shore of Enlightenment.”

<표3> 한역-한글본에서는 명호사용에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표3>한역본의 佛이 한글본에서 ‘여래’로 번역된 것은 예외적이다. 또한 영역본 TE1, TE2에서도 ‘Tathagata’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붓다의 인용구 안에 포함된 佛은 면대면 대화 속에 존재하지 않는 제 삼의 존재이거나 대상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영역본(TE1, TE2, TE3)에서는 의미전달을 위해 번역가의 내용추가나 목표어 독자를 고려한 의역을 첨가하였다.

<표 4> 금강경 제13장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 3

TC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所說法不?」
TK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어떤 진리를 말할 바가 있는것이나.
TE1	“What do you think, Subhuti? Is there any dharma at all which the Tathagata has preached?”
TE2	“Subhuti, what do you think? Is there any such dharma spoken by the

	Tathagata?”
TE3	“What do you think, Subhuti? Has the Buddha taught any definite teaching in this Sutra?”

<표 4> 한역본의 ‘如來’는 한글본에서는 ‘여래’로 TE1과 TE2에서는 ‘Tathagata’로 일관성 있게 번역되고 있으나, 영역본 TE3에서는 의미전달을 목표로 불필요한 혼돈이 발생할 수 있는 명호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명호를 Buddha로 번역하는 전략을 취하여, 내용전달 위주로 번역을 하였다.

<표 5> 금강경 제13장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 4

TC	須菩提白佛言。「世尊, 如來無所說。」
TK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죄였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사옵니다.
TE1	Subhuti said, “No indeed, Lord. There is no dharma at all, Lord, which the Tathagata has preached.”
TE2	Subhuti said, “No, indeed, Bhagavan. There is no such dharma spoken by the Tathagata.”
TE3	“No lord, the Buddha has not taught any definite teaching in this Sutra.”

<표 5> 한역본의 ‘佛’은 한글본에서는 ‘부처님’으로 번역되었으나 영역본에서는 이어지는 문장과 관계를 고려하여 명호를 생략하거나 독립적인 문장을 구성하지 않았다. 또한 한역본 世尊과 如來에 대해서도 한글역이 일관성있게 한역본에 충실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영역본에서는 명호의 선택이 역자해석에 의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금강경 제13장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 5

TC	須菩提言。「甚多, 世尊。」
TK	수보리가 사죄였다.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TE1	Subhuti said, “Lord, the dust of that much earth would be a lot.
TE2	Subhuti said, “Many, Bhagavan. The specks of dust are many, Sugata.
TE3	Subhuti replied: “Yes, many, Most Honored One!”

<표 6> 한역본의 世尊에 대해서 영역본(TE1, TE2, TE3)에서는 명호사용에 차이가 있다.

<표 7> 금강경 제13장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 6

TC	「須菩提, 諸微塵, 如來說非微塵, 是名微塵。」
TK	수보리야, 이 모든 먼지를 여래는 먼지가 아니라고 말 하나니 이것은 이름이 먼지일 뿐이며,」
TE1	Any dust of the earth preached by the Tathagata, Lord, has been preached by the Tathagata as dustless. Thus it is called ‘the dust of the earth.’
TE2	And how so? Because, Bhagavan, what the Tathagata says is a speck of dust, Bhagavan, the Tathagata says is no speck. Thus is it called a ‘speck of dust.’
TE3	“Subhuti, when the Buddha speaks of particles of dust, it does not mean I am thinking of any definite or arbitrary thought, I am merely using these words as a figure of speech. They are not real, only illusion.

<표 7> 한역본의 如來가 한글역에서는 여래로 대응 번역되었다. 그러나 영역본(TE1, TE2, TE3)의 명호번역은 한역본과는 달리 Tathagata, Buddha 등으로 표기되었으며, 담화중에 화자에 대한 존경의 표기로 Lord, Bhagavan 등의 명호가 첨부되었으며, 내용에서도 부연과 첨언이 덧붙여졌다. 특히 TE3는 역자설명이 상대적으로 장황하며, 일인칭 ‘I’를 직접 사용하여 붓다의 직접설법임을 직설적으로 보이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타번역본과 차이를 표시하기 위해 밑줄로 표기했다.

특히 <표 7>의 영역본에서는 Tathagata, Lord, Bhagavan 등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문맥적으로 분석하면, TE1의 Lord와 TE2의 Bhagavan은 담화상의 청자에 대한 존칭으로 볼 수 있으며, Tathagata는 담화에 존재하지 않는 제3의 대상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역본에서 제기된 명호의 사용은 한역본의 ‘佛, 世尊, 如來’에 대한 동일화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글역에서도 각 명호의 사용에 대해서 맥락적 의미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표 8> 금강경 제13장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 7

TC	如來說世界, 非世界, 是名世界。
TK	여래가 말하는 세계 또한 그것이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일 따름이니라

TE1	Any world-system there is has been preached by the Tathagata as systemless. Thus it is called ‘a worldsystem.’”
TE2	And what the Tathagata says is a world-system, the Tathagata says is no system. Thus is it called a ‘world-system.’”
TE3	It is just the same with the word universe; these words do not assert any definite or arbitrary idea, I am only using the words as words.”

<표 8> 영역본(TE1, TE2)에서는 구조화된 언어에서 주어자리를 채우기 위한 명호의 첨가, 혹은 담화자와의 거리, 즉 존경심을 외현화하기 위해서 명호를 첨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TE3은 의미전달위주의 의역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본고에서는 밑줄로 표기하였다.

<표 9> 금강경 제13장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8

TC	須菩提，於意云何？ 可以三十二相見如來不？
TK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하나? 가히 서른 두가지 거룩한 몸매(三十二相)로써 여래를 볼 수 있겠느냐.
TE1	The Lord said, “What do you think, Subhuti? Can a Realized, Worthy, and Perfectly Awakened One be seen by virtue of the 32 Distinctive Features of a Great Man?”
TE2	The Buddha said, “Subhuti, what do you think? Can the Tathagata, the Arhan, the Fully-Enlightened One be seen by means of the thirty-two attributes of a perfect person?”
TE3	Subhuti, what do you think? Can the Buddha be perceived by means of his thirty-two physical characteristics?”

<표 9> 한역본의 如來에 대한 영역본(TE1, TE2)의 명호를 살펴보자. 영역본 TE1에서는 <표 7, 표 8>과는 달리 a Realized, worthy, and Perfectly Awakened One이라는 여러 수식어를 사용하여 여래를 번역하였고 TE2에서는 ‘Tathagata, the Arhan, the Fully-Enlightened One’으로 상당히 장황하게 번역을 했는데 한역본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9>에서 如來를 ‘Tathagata’ 와 더불어 수식어를 첨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문맥상으로 정확하지 않다. 이와 대조적으로 TE3은 <표 7, 표 8>에서 ‘T’라는 일인칭을 사용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Buddha’라는 일반적인 명호를 사용했다.

<표 10> 금강경 제13장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9

TC	「不也，世尊。 不可以三十二相得見如來。」
TK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서른 두 가지 거룩한 몸매로써는 여래를 비울 수 없습니다.
TE1	Subhuti said, “No indeed, Lord .
TE2	Subhuti said, “No, indeed, Bhagavan .
TE3	“No, Most Honored One . The Buddha cannot be perceived by his thirty-two physical characteristics.

<표 10> 한역본에서 사용된 世尊과 如來는 한글본에서는 한자어를 그대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영역본(TE1, TE2)에서는 세존은 ‘Lord, Bhagavan’으로 번역되었으나 여래가 포함된 문장은 생략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TE3에서는 세존을 ‘Most Honored One’으로 번역하였고, 여래를 ‘Buddha’로 번역하였다.

<표 11> 금강경 제13장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10

TC	何以故，如來說三十二相，即是非相，是名三十二相。」
TK	왜 그러냐, 하오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서른 두가지 거룩한 몸매는 곧 몸매(相)가 아니옵고 그 이름이 몸매이기 때문이옵니다.
TE1	Why is that? Whatever 32 Distinctive Features of a Great Man have been preached by the Tathagata, Lord , have been preached by the Tathagata as featureless. The Tathagata, the Arhan, the Fully-Enlightened One cannot be seen by means of the thirty-two attributes of a perfect person. Therefore they are called ‘the 32 Distinctive Features of a Great Man.’”
TE2	And why not? Because, Bhagavan , what the Tathagata says are the thirty-two attributes of a perfect person, Bhagavan , the Tathagata says are no attributes. Thus are they called the ‘thirty-two attributes of a perfect person.’”
TE3	Why? Because the Buddha teaches that they are not real but are merely called the thirty-two physical characteristics.”

<표 10>의 不可以三十二相得見如來는 영역본(TE1, TE2)에서 번역하지 않았다. TE1과 TE2의 <표 10>에서 생략되었던 부분이 <표 11> 밑줄 그은 부분으로 보충하였고 Tathagata as featureless를 첨삭하여 의미를 보충하였다. 따라서 한역/한글/TE3와는 문장배열에서 차이를 보인다. TE3은 여래를 일관성 있게

‘Buddha’로 번역하였다.

<표 12> 금강경 제 13장 번역본의 명호사용 빈도비교표

	한역 (TC)	한글역 (TK)	Harrison (TE1)	Red Pine (TE2)	IBDS (TE3)
佛	4	부처님 2	Lord 11	Buddha 8	Lord Buddha 1 Buddha 2
世尊	4	세존 4	Buddha 14	Bhagavan 4	Lord 1 Most Honored One 2
如來	7	여래 8	Tathagata 8 Realized, Worthy, and Perfectly Awakened One 1	Tathagata 10 Tathagata, the Arhan, the Fully-Enlightened One 2 Sugata 1	Buddha 6
단어수	58	168	326	351	331

금강경 제13장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의 한역/한글역/영역본의 명호사용 빈도 비교표 <표12>는 영역본에서 명호사용빈도가 높으며 표현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역본과 비교했을 때 사용한 단어 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표의문자인 한역본에서의 단어사용은 함축적이며, 의례적이고 격식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역금강경을 원전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한국의 불교는 교리의 심오함, 한역본의 격의성 그리고 한자어의 함축성으로 인해 의미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한역본이 갖는 언어 내적인 표현의 한계는 한글번역본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명호의 의미와 사용에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3.3 명호번역의 사용역(使用域)과 의미역(意味役) 분석 결과

3.3.1. 금강경의 명호번역과 번역학

<표 2-표 11>에 정리된 붓다의 명호(佛, 世尊, 如來)를 중심으로 사용역과 의미역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번역학적 의미를 살펴보자. 위에서 살펴본 불경번역을 Nida(1964)의 형태적·역동적 번역분류로 설명하면, 원문의 형식과 의미를 가능하면 유지하면서 번역한 한글역과 영역본 TE1, TE2는 원전위주의 형태적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목표어 독자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의역

을 허용한 영역본 TE3은 불경번역에서 원전을 중시하되 독자의 이해를 고려하여 의역을 허용하는 역동적 형태의 자율적 번역, 혹은 통합적 번역(박윤철 2009)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 살펴본 불경번역은 한역금강경을 원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문 자체가 산스크리트어 원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오백년 이상을 불교 의식속에 정례화되어 원본지위를 유지해오다가 불교의 대중화 작업의 일환으로 한글 금강경이 번역되어 읽히게 되었다. 따라서 한글 금강경은 산스크리트어가 아니라 한역금강경을 매개로 한 간접번역(Indirect translation)이며, 산스크리트어에서 중국어로 그리고 한글로 중역(重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간접번역은 하나의 주변언어에서 중앙언어를 통해 다른 언어로 변형되는 현상(Heilbron 2010, p.308)으로 번역언어 사이의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간극이 클수록 증가하지만, 정확성과 원천어 중심적 경향이 증가하면 감소한다.

한역불경은 불교가 도입된 이후 천오백년 간 한글번역본의 중간매체로 불교의 교리를 전파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승가와 학자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불경에 대한 이해는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한글번역본이 출간되고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대중들의 지적 호기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글번역텍스트를 통한 불교의 이해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은 간접번역으로 인한 원본과의 거리에서 기인한다고 보인다. 즉 3.2.에서 살펴본 한글금강경은 한역금강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언어의 내재적 속성에 기인한 일반적인 어휘와 단어배열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원문과 거의 일치한다. 한자에서 한글로 언어가 변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경의 텍스트 이해도가 향상되지 않는 것은 언어변형의 문제가 아니라 간접번역에서 발생하는 매개텍스트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역금강경이 매개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의식의 정형으로 의례화되면서 원본텍스트로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노출되면서 모국어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산스크리트어 원본은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거리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글금강경은 자연스럽게 한역금강경을 모델로 현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3.3.2. 명호번역의 사용역과 의미역

한역금강경은 붓다와 수보리의 직설담화를 열반 후 제자들이 성문화한 것

으로 금강경의 텍스트는 붓다의 선형 시간대에 고정되었으며, 이것을 관찰자의 시각에서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적 지식을 전제로 한역금강경에서 사용된 ‘佛, 世尊, 如來’의 명호를 담화상에서 살펴본다면, 3.2.에서 언급하였듯이 깨달은 자를 의미하는 여래십호의 동의어 선상에서 해석되기보다는 맥락적으로 의미역과 사용역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한역금강경의 佛은 <표 2> 須菩提白佛言 <표3> 佛告須菩提 등에서 처럼 서술문에서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한역본 佛은 관찰자 시점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기술할 때 사용되므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인 Buddha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Harrison의 번역에서는 Lord라는 표현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영향으로 보이며, 종교 지도자로서의 지위나 입지를 강조하여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2. 한역금강경 世尊은 <표 10> 不也, 世尊 등과 같은 담화어절에서 보이듯이 화자에 대한 존경과 지위를 보장하는 표현으로 주로 담화상에서 사용된다. Harrison은 일관적으로 世尊에 대해서도 Lord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Red Pine은 Bhagavan¹³⁾을 사용하고 있다.

3. 한역금강경에서 如來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명호로 영역본에서는 다양한 해석과 번역을 취한다. <표 3> 佛說般若波羅蜜 <표4> 如來有所說法不? <표 5> 世尊, 如來無所說. <표 10> 不可以三十二相得見如來에서 볼 수 있듯이 如來는 담화상에 직접 존재하지는 않지만, 화자와 청자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절대적 존재나 대상을 객관적으로 지칭하는 명호로 영역본에서는 Tathagata, 혹은 Tathagata에 수식어를 동반한 형태로 번역되고 있다 (TE1, TE2). <표 3>의 한역본 ‘佛’에 대한 한글 번역이 ‘부처님’ 대신 ‘여래’라는 명호를 선택하여 번역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한 번역이며, 이것은 영역본의 ‘Tathagata’와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佛은 모든 깨달은 자를 총칭하는 명호이며, 世尊은 담화상에 존재하는 佛의 다른 명호로써 존중을 함의한다. 如來는 붓다의 다른 명호로 언어적

으로는 산스크리트어의 ‘tatha(thus)’와 ‘gata(gone)’ 혹은 ‘agata(come)’가 합성되어 영어로는 ‘Thus Come One’, 한자로는 如來 즉 있는 그대로의 ‘여(如)’와 온다는 의미의 ‘래(來)’가 합쳐져 있는 그대로 오고 가는 실체(reality as it is) 즉 ‘it is what it is’를 의미한다. 실제로 금강경 본문 제 29장 위의적정분(威儀滅靜分)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래를 정의한다. 「如來者, 無所從來, 亦無所去, 故名如來」라 하여 ‘여래란 어디로 부터 온 바 없으며, 또한 어디로 가는 곳도 없으므로 여래라 불리는 것이다’.

일반적인 실체를 의미하는 tathagata가 금강경에서는 인간에 내재하는 진정한 실체, 진아(眞我, true self), 혹은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Tathagata로 발전되었다(Conze 1994, p.299)고 볼 수 있다.

발전된 개념으로서의 如來는 위의 <표 8> 「須菩提, 諸微塵, 如來說非微塵, 是名微塵」에서 처럼 붓다와 수보리가 모두 알고 있는 제 삼의 이상적 존재를 지칭하는 명호로 사용되고 있다. 금강경을 설법하는 붓다가 수보리에게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음을 함의하듯이 가르침의 주체를 如來라는 제 삼의 명호로 지칭하는데 이것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진아(眞我)와 실존적 존재인 붓다(我) 사이의 관념적 거리를 언어적으로 가시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금강경에서 지속적으로 설명되는 상(相)과 실체와의 관념적 거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如來는 붓다의 진아를 가시화한 것일 수도 있고, 모든 인간이 가진 진아의 집합체인 최고의 이상적 실체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붓다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수행자에게는 깨우친 존재이므로 如來와 동일시 될 수 있으므로, TE3 영역금강경에서는 如來를 Buddha로 번역한 것은 일반인이나 수행자들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4 불경번역과 번역교육

3.4.1. 불경번역과 간접번역

중국의 불경번역 역사는 불교의 파급과 역사를 같이하며, 최고 2세기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한자로 번역되고 중국문화를 흡수하면서 마하야나 불교는 예불의식을 중시하는 격의(格義)불교로 거듭났다. 엄

13) 인도에서는 붓다를 의미하는 용어로 주로 불자들에게 의해 사용된다. (<https://en.wikipedia.org/wiki/Bhagavan>)

격한 예불의식과 사경을 통해 복을 짓는다고 믿는 중국의 문화는 불경의 정형성 유지와 불경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사경문화는 자연스럽게 인쇄술의 발달로 이어지면서 한역본 불경이 대량으로 보급되어 현재까지 가장 많이 소장되고 읽혀지는 불경연구의 원전지위를 확보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¹⁴⁾ 즉 불교의 시작은 인도이지만 불경연구에서는 한역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중국문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역불경은 한글번역본을 생산하는데 중요한 텍스트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경번역은 간접번역¹⁵⁾이다. 한역불경은 자칫하면 사라질 수도 있었던 불교의 교리를 보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불교의 파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역불경의 역사적 가치는 팔만대장경을 위시하여 현존하는 많은 불경에서 가치가 인정되듯이 불경번역에서 간접번역은 정보전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역불경에는 중국어 문체, 화법, 문화가 내재하므로¹⁶⁾ 원본텍스트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본 고 3.2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역-한글 금강경에서는 직시할 수 없었던 붓다 명호의 맥락적 차이는 간접번역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번역의 한계는 국제화와 전자화를 통해 풍부해진 문헌정보의 다양성과 원문에 대한 접근성 향상 혹은 다른 번역본을 참조하면서 극복될 수 있다. 지식혁명의 사회에서 원문에 대한 정확성을 추구하는 목표어 독자의 상승된 지적욕구는 당연한 것이며, 부득이 언어 문화적 지리적 간극으로 인해 간접번역에 의존함으로써 소실되었던 원문의 상실된 의미는 늦었지만 원문번역을 통해 보상하는 것이 번역가의 책임이기도 하다.

3.4.2. 간접번역과 번역교육

번역의 번역으로 불리기도 하는 간접번역은 국제열강이 활보하던 1900년대

- 14) 현재 본 고에서 살펴본 한글 금강경의 원전자료로 사용한 것도 한역금강경이며, Red Pine을 위시하여 영역금강경을 시도한 서구의 불교학자들이 사용하는 것도 한역본이다.
- 15) House는 번역을 외재적 번역과 내재적 번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내재적 번역은 문화적 여과장치(cultural filter)를 통해서 문화적 요소를 목표문화에 맞게 수정하여 목표문화권에서 원전의 지위를 누린다(2006, p.25-26).
- 16) 한역불경의 한글화 작업은 한역불경에 내재하는 중국문화와 그와 연관된 불교교리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흡수해야 하는 이중부담이다.

초반에 생산된 문학작품에서 그 용례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문학작품의 번역, 문화번역 혹은 국제어를 중심으로 병렬텍스트를 생산하는 기술번역에서 전략적으로 채택되기도 한다. 따라서 간접번역은 필요에 의한 번역이며, 익숙하지 않은 타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며, 번역실무에서는 번역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전략적 가치가 인정되기도 한다.

번역교육에서 간접번역은 무엇보다도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상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며, 원문번역을 위한 곁텍스트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종교번역, 혹은 영상번역(audio-visual translation)에서도 흔히 사용되므로 직접번역이 어려운 상황이나 혹은 직접번역의 선행과정으로 간접번역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교육에서도 간접번역은 직접번역을 위한 선행과정이나 번역비평 자료로 교육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최근에 불경에 대한 의례적 태도가 완화되면서 한역불경의 한글화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종교의 다변화로 영역불경에 대한 요구와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불경의 한글화 내지는 영역화는 소실될 수 있는 정신문화를 기록하는 과정이며, 번역의 새로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불경번역은 번역교육에서 간접번역 혹은 중역(重譯)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즉 한글본에서 발견되는 의미어인 한역본의 영향력을 직시하고 존재하는 원본과 비교하여 본유의 의미를 확인함으로써 중역과정에서 소실되었을 수도 있는 의미의 복원 및 확인을 통해 원전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전달하여 가독성을 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불경번역이 의례적인 격식문화와 가독성을 염두에 두고 진화해야 함을 함의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번역교육도 대상과 목적에 따라 진화해야 함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불경번역의 진화를 위해서 종교계 뿐 아니라 번역학계에서도 열린 시각과 태도를 갖고 불경의 역사성과 정신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전수하는데 적극적인 매체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조계종의 소의경전,¹⁷⁾ 종교문학의 보석이라 불리는 금강경을 중

심으로 붓다를 지칭하는 명호(佛, 世尊, 如來)의 한글본, 영역본을 비교하면서 명호의 의미역과 사용역을 살펴보았다. 불경연구에서는 한역본의 의존도는 거의 원전과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금강경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구마라집의 한역번역본을 보면, 언어는 격식적이고, 개념은 추상적이며, 내용은 순환적이어서 설법의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위진남북조시대의 구마라집이 산스크리트어에서 한문으로 번역할 당시(402년) 당대의 문화사조가 언어에 반영되었거나 혹은 번역의 언어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의미의 상실에서 기인한 어려움일 수도 있다.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소개된 한역금강경은 정례화된 불교의식을 통해 천오백년 이상 독송되고 암송되며 한국 불교에 소의경전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한글로 번역된 금강경은 한역금강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 붓다를 지칭하는 명호(佛, 世尊, 如來)는 한글번역에서 거의 1대1 대응이 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구마라집 한역본을 참고하여 영역한 금강경(Harrison 2006; Red Pine 2002)에서는 표의문자인 한문과의 엄격한 언어차이로 인해 직역위주의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명호 뿐 아니라 문장의 구조 및 단어 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용전달을 위주로 번역된 IBDS(2017)는 의례적인 표현을 덜 격식적인 목표어로 표현하여 독자의 가독성을 높였으며, 명호(佛, 世尊, 如來)를 Buddha로 일원화시키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번역도 번역문화도 진화한다. 함축적이고 격식적인 고급 종교문화로서의 불경이 이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천 년이상 봉인되었던 불교 비밀 도서관의 다양한 문헌이 번역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불경번역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단체를 중심으로 번역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성서번역과 비교했을 때 대중과 학계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불경번역은 오랜 역사의 산물로서 다양한 원본과 문헌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문화를 강조하는 현대사회와 시류(時流)적으로 부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유망한 번역시장으로 번역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7) 소의경전이란 불교에서 신행(信行)을 비롯하여 교의적(教義的)으로 의거하는 근본 경전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2009) 『조계종 표준 한글 금강경』, 서울: 조계종 출판사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9) 『조계종 표준 금강반야바라밀경 주석본』, 서울: 조계종 출판사.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편역 (2013) 『조계종 표준 한글 금강경』, 조계종출판사
- 박윤철 (2009) 「불경(佛經)번역 방법에 관한 제언」, 『번역학연구』 10(3): 121-139.
- 이승재 (2017) 「금강경의 당위성 연결어 하이고(何以故)의 한역, 한글, 영역본의 번역양상에 대한 비교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5(1): 213-231.
- 조현숙 (2010)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 나타난 佛名號에 대한 검토」 『중앙승가대학 대학원연구논집』 제3집: 293-325.
- 정성욱 (2013) 「금강경의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 『불교학연구』 36: 229-269.
- Conze, Edward (1967) *Buddhist Thought in India: Three Phases of Buddhist Philosoph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onze, Edward (1994) *The Perfection of Wisdom in Eight Thousand Lines and Its Verse Summary*, Missouri: South Asia Books.
- House, Juliane (2006) overt Translation, Language Contact, Variation and Change, *SYNAPS* 19, 25-47
https://openaccess.nhh.no/nhh-xmlui/bitstream/handle/11250/2401110/House_2006_Covert%20Translation,%20Language%20Contact,%20Variation%20and%20Change.pdf?sequence=1 retrieved Oct. 4, 2019
- Heilbron, Johan (2010) 'Towards a Sociology of Translation: Book Translations as a Cultural World System'. In M. Baker(Ed.), *Critical Readings in Translation Studies* (pp.304-316) London: Routledge.
- MacGregor, Geddes (1989) *Dictionary of religion and philosophy*, New York: Paragon House.
- Müller, Max (1894; 2001) *The Sacred Books of the East - Buddhist Mahayana Texts*. Max Muller et 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ranslation.
- Nagatomo, Shigenori (2000). 'The Logic of the Diamond Sutra: A is not A,

therefore it is A' *Asian Philosophy* 10 (3): 217-244.

- Nida, Eugene 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 Paul Harrison (2006) *Vajracchedikā Prajñāpāramitā: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anskrit Text Based on Two Manuscripts from Greater Gandhāra*, New Castle: Hermes Publishing.
- Red Pine (2002) *The Diamond Sutra: Perfection of Wisdom*, Berkeley: Counterpoint.
- Red Pine (2009) *Lao-tzu's Taoteching: With Selected Commentaries from the Past 2,000 Years*, Port Town: Copper Canyon Press.
- Thich Nhat Hanh (1992) *The Diamond That Cuts Through Illusion: Commentaries on the Prajnaparamita Diamond Sutra*, Berkeley: Parallax Press

<https://ko.wikipedia.org/wiki/>

<http://terms.naver.com/entry>.

<https://www.smithsonianmag.com/smart-news/Five-things-to-know-about-diamond-sutra-worlds-oldest-dated-printed-book-180959052/> retrieved Aug. 14, 2019.

<https://www.universelaws.net/?p=206> International Buddha Darma Society for Cosmic Law. retrieved Aug. 13, 2019.

[Abstract]

Indirect Translation and Educati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Appellations of Buddha in the Diamond Sutra

Lee, Seung Jae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takes the Diamond Sutra, which is most honored by the Mahayana Buddhism and is endeared as a jewel of religious literature, and explores some problems on the indirect translation of Korean Diamond Sutra from Chinese translation. In order to do this, the Chinese translation of Diamond Sutra (402), the oldest and most authentic version was taken as a source text, and other translations such as one Korean translated Diamond Sutra and three other versions of English translation are compared with special focus on three appellations(佛, 世尊, 如來) mainly used for designating the enlightened religious leader in Buddhism(Gautama Siddhartha). These are generally assumed to be the epithets of Buddha and people freely use them without much attention of each terminology's meaning and usages. However this study shows that the three appellations have specific usage and meaning in the context and concludes that 佛 is a generic term for designating the enlightened person and is translated as Buddha or Lord; 世尊 is a term used in the conversation with implication of speaker's respect and honor and is translated as Bhagavan; 如來, Tathagata, is the identical third party of the enlightened which is mainly used for designating an ideal truth or goodness in the context of conversation in the Diamond Sutra. Moreover this study has the educational implication on the translation-the limit of the indirect translation.

▶ Key Words: Diamond Sutra, Indirect translation, Buddha, Bhagavan, Tathagata

▶ 주제어: 금강경, 간접번역, 불, 세존, 여래

이승재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부교수

sjleeth@khu.ac.kr

관심분야: 문화번역, 번역교육, 불경번역

논문투고일: 2019년 8월 29일

심사완료일: 2019년 9월 3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0월 8일